6장과 7장 요약 및 감상문

201814003 김은정

동아시아(중국과 한국, 일본)사에서 일본은 유일하게 독자적인 발전과정을 형성하고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고대와 중세, 근대로 나뉘어져 있는데 6장에서는 고대와 중세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7장은 근대 (메이지 유신 이후)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흥미로웠던 부분은 중세 이전, 8C말 헤이안 시대까지 한국과 중국 즉 다른 동아시아권 나라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발전과정을 밟았다는 점입니다. 일본의 시대분류 기준은 그 당대의 문화적인 부분으로 시대를 나누곤 하는데 처음 시작은 약 1만년전 토기를 사용하는 조몽인의 등장으로 고대를 엽니다. 그 전에는 사람이 살지 않았느냐 한다면 20~30만년 전부터 구석기 인이 거주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석기를 사용한 사람들은 원인으로 불리는 인종으로 일본인의 직접적인 조상인 신인은 아닙니다. 정확히 신인의 등장은 1만년 전부터였으며 이때 이들은 조몽(혹은 조몬)이라고 하는 토기를 사용했는데 새끼줄로 눌린듯한 매듭무늬의 특색이 있어 조몽토기라고 했다고 합니다. 초기에는 음식을 먹기 위해 깊고 밑이 뾰족한 토기였으나 후에는 음식과 물을 보존하는 항아리형 토기로 발전했으며 무늬도 다양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구석기 시대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몬시대 다음으로 야요이 시대 부터는 환호집락이라고 하여 계급사회가 출연하는데 이때 한반도로부터 건너온 많은 이주민을 중심으로 야요이 문화가 생성되게 됩니다. 그 다음 4C경 긴커를 중심으로 야마토 정권이 고분시대를 열었으며 다음 아스카 시대와 나라 시대는 백제의 멸망으로 많은 백제인들이 일본으로 건너가 문화와 체제를 전달하고 이 시대에 율령국가체제를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시대에는 중국의 당나라를 카피, 당의 장안성을 모방하여 헤이조쿄가 만들어지고 헤이안쿄로 옮겨갈 때까지의 70년간을 나라시대라고 합니다. 또한 이 시대에 등장한 쇼무 천황은 불교를 신봉하여 불교가 가지는 호국의 사상에 의해 국가의 평안과 안정을 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나라시대 후기는 정치적 변동이 격심한 가운데 왕도를 야마시로국으로 옮겼고 그 이름을 헤이안쿄(지금의 교토시)라고 이름지었습니다. 천도의 이면에는 일찍부터 한반도에서 건너온 이주민들이 그곳에 자리잡고 있어 그들의 세력을 활용하려는 의도도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때부터 가마쿠라 막부가 열리는 시대까지 약 400년의 헤이안 시대가 열립니다. 여기까진 중국과 한국 역시 비슷한 발전 과정을 밟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 이후 가마쿠라 시대부터 영주와 사무라이간의 주종관계의 양상을 띄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마치 유럽의 기사와 왕도간의 주종관계의 양상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마쿠라 시대에 대한민국은 과거제를 뽑아 문과를 중시하였고 이 당시 성균관(지금으로서는 교육기구에 해당)을 설립하여 인재를 길러내었습니다. 이는 중국에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당시 중국과 바다를 사이에 두고 거리가 멀었기에 더욱 중국의 영향을 덜 받을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가설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무튼 이 가마쿠라 시대는 무신들의 시대인데. 사무라이들은 낮에는 문관의 일을 하고 일정 시간 문관의 일을 하고 난 이후에는 전시를 대비하여 무관의 일을 겸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대까지를 고대시대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현재 일본학계에 따르면 11세기 후반부터를 중세의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대두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어 남북조시대부터 19세기 후반 메이지 유신까지 대략 700년간을 중세라고 보는데 16세기 말을 경계로 하여 전기와 후기로 나누고 전기를 중세 후기를 근세라고 합니다 무로마치 시대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막번체제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무로마치 시대 이후 전국시대가 펼쳐지는데 대략 300개의 번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여기서 오다 노부나가가 조총을 수입하여 기존 사무라이들의 기마체제를 뒤흔들게 됩니다. 실제 오다 노부나가는 가장 작은 번의 번주였으나 승리를 거머쥐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 에도막부가 붕괴한 시점까지 300년간을 근세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 근세는 막부체제의 정리와 사농공상의 질서를 보이는데 이때 사는 선비의 사가 아니고 사무라이의 사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 7장에서는 메이지 유신 이후 근대화된 일본과 청일, 러일 전쟁에 대해 다룹니다. 7장의 내용은 일본의 메이지 유신 이후 이와쿠라 사절단이 불평등조약의 개정을 시도하고 선전적인 제도와 문물 시찰 및 점진적인 부국강병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1873년에 귀국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행을 통해 약육강식의 논리에 푹 빠져 귀국하였고 이는 곧 조선과 대만을 식민지로 두기 위한 러일 전쟁을 통해 승리함으로써 영국과의 동맹과 포츠머스조약에 의거 조선을 통치하고 서구열강들과 어깨를 나란히 함으로써 청일 전쟁까지 이루어지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6장과 7장의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 바로 중세시대 이전까지의 발전과정이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의 문화와 건축 양식들은 우리나라의 사절단을 통해 받아들이고 중국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나 가마쿠라 시대에 있어서 사무라이들의 세상이 온 것은 확연히 독자적인 발전을 이루었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일본은 또한 제가 알기로 동아시아에서 헌법을 제일 먼저 제정한 나라였을 텐데 그럼에도 왕족과 입법의 공존 하에 이루어졌기에 그만큼 시민들의 인권의식이 나중에서야 이루어졌다는 점이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사를 배웠을 때 중세나 근대의 역사가 물론 중요하기는 하지만 고대의 모습들에 흥미를 기울이는 편이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일본과 우리나라의 긴밀한 관계가 비단 근대나 중세 뿐만 아니라 고대부터 이어져 왔다는 점입니다. 어쩌면 일본인의 피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피가 섞여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고대시절 우리나라에서 대거 이주해 간 횟수가 빈번한 만큼 그 당시의 유물들을 대조해보면 비슷한 부분들이 많다는 점 역시 흥미로웠습니다. 그럼에도 신앙적으로 일본은 자연의 만물에 신이 있다고 보았고 대한민국 역시 자연의 신앙으로 시작되었다가 점차 불교문화와 유교문화 적으로 들어갔다는 점, 일본의 그러한 자연만물을 신격화한 부분들이 현재 애니메이션이라는 작품들에 담겨있다는 점 역시 굉장히 즐거웠던 부분이었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이 현재의 일본 열도와 일본인에 대한 감정 그들의 문화에 대해 학습하는 부분이었다면 6장과 7장은 일본사에 대해 조금이나마 배울 수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장부터 5장의 내용도 흥미로웠지만 6장과 7장의 내용도 무척이나 흥미롭다고 생각했습니다.